

5장:  
“진보주의의 절정”  
(1960-68)

# 1. 케네디의 뉴프론티어 (New Frontier)

## 1) 풍요속의 빈곤

### -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유함 속의 빈곤

: 빈곤, 가정불화, 남성가장의 가정 포기, 정부구호금에 의존, 절도나 강도, 납치와 같은 범죄, 알코올중독 등 만연

: 이런 문제는 특히 도시 중심부에 밀집

: 주로 흑인 + 라틴아메리카 출신 + 인디안들 중 빈번 발생

: 빈민 중 1/4은 65세 이상의 노인층

: 1/3이상은 18세 이하의 청소년으로 혼자 사는 경우 많음

: 흑인과 인디언의 절반 이상이 빈민

: 빈민의 1/4이상은 여성 가장인 경우가 많아

## - 치카노(Chicano)

- : 미국남부에 위치한 멕시코 등 남미에서 2차대전과 그 후에 농업 노동자로 왔다가 남은 자들을 주로 말하는데, LA의 롱비치 등의 멕시코인 밀집 지역에 많이 거주
- : 주로 빈민층

## 2) 1960년 대통령선거와 뉴딜 진보주의의 부활

### -1960년

- : 미국 경제 침체 시작
- : 국가 채무 약 \$3천억

### -케네디, 닉슨과 대결에서 승리

- : 케네디家は 명문가문
- : 할아버지는 아일랜드계로서 보스턴시장 역임
- : 아버지는 백만장자 + 주영대사 역임

- 본인(43세)은

: 4아들 중 2번째로

: 어릴 때는 형 조셉2세의 그늘에 가렸으나 형이  
2차대전에서 전사하자, 집안에서 대통령 만들기 작업

: 하원의원 + 상원의원 역임

- 케네디가 대통령 되면서 동부출신 엘리트들 득세

: 국방장관에 맥나마라(44세: p)는 24세에 하버드대학 조교수,  
그 후 Ford자동차회사의 사장 역임

: 동생(Robert)은 35세로 법무장관이 됨

: 이런 40대 젊은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김영삼, 김대중 등  
40대 기수론을 주장하게 하여 한국 정치체에  
주도세력으로 부상하는 하나의 동기가 됨.

## - 새로운 개척자(New Frontier)

- : 인종차별정책 지양
- : 농민과 교육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 : 노인 의료지원
- : 경기활성화 대책

## 3) 케네디의 후진국 지원정책

### ① 발전론

- 경제학자 윌터 로스토우의 주장에 따라  
미국의 발전모델을 제3세계에 적용
- 후진국의 농업, 운송, 통신 향상 위해 재정, 기술 지원
- 라틴아메리카 경제발전위해 발전협력기금 창설
- 평화봉사단 발족
- 교사, 농업전문가, 의료전문가를 후진국으로 파견
- 3년 동안 1만 명 출국
- 미국식 자유주의 사고방식 전파 일익

## ② 미국에 호의적인 세력 지원

- 미국 특수부대인 그린베레 해외 분쟁지역 진압 지원에 투입  
: CIA도 지원

ex) 브라질의 196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

- 주 굴라트 브라질대통령이 미국국제전화회사의 재산 몰수
- 미국이 쿠바를 아메리카기구에서 축출하자는 제안을 거부
- 굴라트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미국은 브라질 군부의 도움으로 1964년 굴라트 대통령 축출

- 제3세계 국가들은 이러한 미국의 개입 달갑지 않음

## 4) 민권운동과 케네디의 암살

### ① 민권운동가들 무저항과 불복종 운동 계속

- 마틴루터킹목사가 주도한 “남부기독교지도자회의 (SCLC)”는 고의로 인종차별법 위반
- 흑인들 고의로 백인에게만 허용된 식당이나, 도서관, 버스 좌석 이용
- 체포되면 양심수로 기꺼이 감옥행
- 그러나 주정부와는 달리 [특히 미국남부에 있는 앨라배마 주지사의 완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앨라배마대학의 인종통합 정책 강행함

### ② 워싱턴 행진 [P: March on Washington(1963. 8)]

- 전국에서 백인을 포함한 흑인 25만 명이 링컨기념관앞에 운집하여 자유와 평등 주장

: 당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나에게는 어린 손자들이 흑백 구분 없이 다 같이 잘 놀기를 바라는 꿈이 있다...  
 (“I have a dream...” ) “라는 연설로 유명

- 그래도 흑인들의 암살 지속, 흑인시위진압 위해 경찰전, 물호스 이용 등, 잔인한 진압장면이 TV에 그대로 방영되면서 백인지식층의 자각을 일깨우면서 흑인들의 인권향상위한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됨

### ③ Kennedy 암살 (63. 11. 22 금요일)

- 당시 케네디는 자신의 자유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기를 원하였으나, 보수적인 백인의원들의 반발로 통과가 거의 불가능함을 알게 되었다.



- : 이에 케네디는 차기 대선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대통령에 당선되어 대통령의 높은 인기를 이용하여 의안들을 과감하게 통과시키기로 작심
- : 따라서 틈만 나면 전국을 방문하면서 지지 호소
- : 남부에 위치한 달라스 유세 중 케네디의 지나친 자유정책에 반대하는 리 오스왈드(Lee Oswald)가 쏜 총에 맞아 서거
- : 오스왈드의 배후는 쿠바, CIA, 존슨부통령, 소련, 공산주의, 마피아 등 추측만 난무하고 아직까지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음
- : 왜냐하면 저격 이틀 후 TV 앞에서 작은 나이트클럽 주인인 잭 루비(Jack Ruby)가 전국에서 시청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스왈드를 살해
- : 사실 케네디는 살아 있을 때보다 죽어서 더 유명해짐
- : 존슨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여 케네디가 추진했던 거의 모든 법안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통과함

## \*링컨대통령과 케네디대통령 유사점

1. 링컨은 1846년에 하원의원에 선출되었다.  
케네디는 1946년에 하원의원에 선출되었다.
2. 링컨은 1860년에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케네디는 1960년에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3. 링컨의 비서 이름은 케네디였다.  
케네디의 비서 이름은 링컨이었다.
4. 둘 다 시민의 권익보호에 관심이 많았다.
5. 둘의 아내는 백악관 생활 때 아이를 잃었다.
6. 둘 다 금요일에 암살당했다.
7. 둘 다 머리에 총을 맞았다.

8. 둘 다 남부사람에게 암살당했다.
9. 둘의 차기 대통령은 남부사람이었다.
10. 둘의 차기 대통령의 이름은 존슨이었다.
  
11. 링컨의 차기대통령인 앤드류 존슨은 1808년에 태어났다.
12. 케네디의 차기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1908년에 태어났다.
  
13. 링컨 암살자인 존 부스는 1839년에 태어났다.
14. 케네디 암살자인 리 오스왈드는 1939년에 태어났다.
  
15. 부스는 극장에서 총을 쏘고 달아나다→창고에서 잡혔다.  
오스왈드는 창고에서 총을 쏘고 달아나다 → 극장에서 잡혔다.
  
16. 두 암살자는 재판 전에 암살당했다.  
- 이것을 **전생(前生; Parallel Life)**이라고 할 수 있을까?

## 2. 존슨(Johnson)대통령의 진보주의 계승

### 1) 트루먼과 케네디정책 거의 거대로 답습

- 미국을 위대한 사회 (Great Society) 만들기 시도

#### ① 민권법(1964)

- 주로 흑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법

- “공공시설 이용,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원래 국적을 이유로 시민을 차별할 수 없다.”

- 흑인들이 링컨의 흑인해방령을 발표하여 자유인이 된지 10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법률적 보호

- 인종차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연방 자금 지원 중단하는 불이익

- 요즘은 인종차별에 관한 법 상당히 엄격함

## ② 투표권법(P: 1965)

- 흑인들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투표자격이 있는 소수민족주민들 중 절반 이하만 투표
  - : 1964년 흑인들의 1/4이하만 투표,  
미시시피 주는 6.7%만 투표
  - : 백인들이 흑인들이 투표장에 나오면 야유를 보내거나 침을 뱉는 등 투표를 노골적으로 방해하여 투표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였음
  - :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되고 난 뒤인 1968년에는 흑인들의 2/3가 투표
  - : 1981년에는 미시시피 주도 70% 흑인이 투표

### ③ 1964년의 대선

- 존슨대통령, 공화당의 배리 골드워터에게 압도적으로 승리
- 뉴딜진보주의의 계승

- : 노인의료법 (Medicare) 제정
- : 초중등교육법
- : 초중등학교 연방정부 지원

### 2) 빈곤에 대한 전쟁

- \$135억 준비
- 직업봉사단, 빈민법률구조단 설치
- 젊은이들에게 기술, 근로, 보수교육, 상담소 설치

### - 빈민의 감소

- : 1962년의 25%빈민이 1973년에는 11%로 하락
- : 주로 도시 빈민에 초점
- : 그러나 농촌과 여성 빈민 문제는 여전히 남음

### 3) 워렌 (Earl Warren) 대법원 판사의 진보주의

#### ① 베이커 대 카 (Baker v. Carr) 판결 (1962)

- : 찰스 베이커 (테네시 주 시민)
- : 조 카 (테네시 주 국무장관)

#### - 베이커 주장

- : 1901년 이후로 테네시 주내 도시와 농촌간 인구 이동 많았으나 한 번도 인구수에 적절하게 의원수 조정되지 않았음

#### - 판결

- : 주 선거에서 1인 1표주의 (One man, one vote) 원칙 재확인
- :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각 주의 하원 의원수 결정됨
- : 인구수에 따른 의원수 조정을 **할당** (Apportionment) 이라고 함
- : 인구센서스 결과에 따라 지역구를 다시 조정하는 것을 **재설정** (Redistricting) 이라고 함

\* **게리맨더링** (Gerrymandering)

: 자기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획하는 일

② 대법원은 학교에서의 기도 금지(1962)

③ 대법원은 국가 안보를 해치는 조직에 가입된 사람이라도 정부에 등록할 의무 없다(1965).

④ 서적, 잡지, 영화에서 출판물의 자율권 인정

-선정적 내용 금지 불가

-인터넷에서도 가능(클린턴 대통령 당시)



## ⑤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1966)

- 미란다라는 라틴계 청년과 애리조나 주 간 소송

- 어네스토 미란다

: 멕시코계 이민자의 아들

: 1963년 애리조나 주에서 18세 여자 강간사건

: 가족의 목적에 따라 미란다가 용의자로 체포

: 경찰에서 미란다를 범인으로 자백

: 그러나 미란다는 경찰의 강압에 의한 자백으로 무죄 주장

## - 대법원 판결

- : 자백은 증거가 될 수 없다
- : 객관적인 증거만 증거가 될 수 있다
- : 당시 소송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정하였는데, 이를 **미란다원칙**이라고 하며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그대로 시행
- : 경찰은 피의자를 체포할 때 다음 사항을 피의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 받을 수 있다.

㉡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 피의자의 말은 그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용될 수도 있다.